

어디에 쓸까? 행복한 고민...온종일 소비쿠폰 열기

소비쿠폰 신청 첫 날 표정

광주·전남 20만여건 신청·접수
이른 아침부터 행정복지센터 대기줄
상인들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11월까지 사용...9월22일 2차 신청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행정복지센터는 업무 개시 전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지역 상인들은 단골 고객들에게 고객 유치를 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신청에 어설피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은 “시장 가서 삼겹살이든 갈비든 한 근 사볼 생각이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숨 좀 돌리게 해주면 그게 고마운 거다”며 반색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민생회복 쿠폰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구 7900여명, 남구 4200명, 동구 2400명, 북구 1만400명, 광산구 7000여명 등 3만1900여명이 신청했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6만 594건(383억원)이 접수됐다.

광주시는 1인당 최대 43만원, 전남은 최대 4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첫날인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시민을 대상으로 요일제가 적용됐으며, 신청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은 아침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느라 분주했다.

양림동에 거주하는 최반배(76)씨는 “이런 건 지역 상권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시장 상인도 좋은 거다”며 “평소엔 지갑 열기가 망설였겠지만, 일부러라도 시장 가서 삼겹살이든 갈비든 한 근 사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배종인(77)씨도 “가까운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모처럼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나 좀 나눠보려고 한다”며 “요즘은 다들 어렵고 마음도 무거운데, 이렇게라도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일이 생기면 좋은 거다”고 했다.

지역 상권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인동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70대 김모씨는 “단칸방에서 후라이 하나 해먹을 부탄가스 하나도 못거린 사람들이 이제 맘 편하게 장바구니 기대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요즘은 하루 2000원으로 밥을 세 끼 해결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에겐 커피 한 잔, 계란 네 알도 사치”라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해온 황정량(63)씨는 “우리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돈은 바닥에서 들고 돌아야 산다”며 “자영업자들끼리도 물건을 사고파는 구조가 되면 10만 원이 20만 원, 30만 원의 가치로 커질 수 있다. 그게 지역경제의 싹틔줄”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고령층은 먹거리와 의약품 등으로 쿠폰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남편이 아파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이다”, “비싸서 못먹었던 영양제라도 사먹어보려고 한다”는 반응과 “워낙 채소 값도 비싸서 장보러 10만 원 갖고 나와도 금방 다 쓴다. 나이먹은 사람들은 카드는 좀 불편해서 상품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아쉬움이 섞인 이야기도 들려왔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지급 대상은 광주 일반시민 1인당 18만 원, 차상위계층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요일제에 따라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인 시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생소비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광주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 10월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

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한다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맞손
28~31일 현장실사...내년 4월 발표

광주·전남·담양·화순 등 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도전에 나선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이다.

2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동안 광주·화순·담양 일원에서 진행된다.

현장실사단은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등을 둘러본다.

30일에는 화순지역의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에는 담양의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방문하고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회와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실태를 최종 심사한다.

선정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

인 일본의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의 타나(Ta Na) 평가위원이다.

선정위원들은 무등산권의 지질명소, 역사문화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존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실사 이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알립니다

‘2025 수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수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16일부터 광주, 세종, 전남, 충청 지역 등에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8월 18일(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03752
농협은행 106-90664-003747
-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온라인 기부 :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https://hopebridge.or.kr)
- ARS 후원 : 060-700-0110 (건당 1만원) / 060-701-1004 (건당 3천원)
- 문자 후원 : #0095 (건당 2천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1544-9595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

전남농업박물관 ‘동아시아 쌀 문화 페스타’ 특강 30일 첫번째 강좌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동아시아 쌀 문화 페스타’에 맞춰 진행되는 특별강좌가 오는 30일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한다. 특별강좌는 올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된다.

첫 번째 특별강좌는 강사로는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이 ‘쌀, 한국인의 삶을 만들다’를 주제로 시간관, 세시풍속, 곡령신앙 등 농경사회에서 형

성된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생활양식을 조망한다. 이번 강좌는 ‘동아시아의 미, 쌀 문화’ 특별기획전과 연계, 동아시아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으로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전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홍주(930301-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화운로 24, 317동 503호 (화정동, 유나비사이드 힐스테이트 3단지)

피상속인 망 정홍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 단4031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 및 유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22일

- 상속인 : 1. 정관호(640605-1XXXXXX)
- 2. 정성숙(680825-2XXXXXX)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지5길 57, 102호 (중우 하나원)

- 신고기간 : 2025. 7. 22. ~ 2025. 10. 1.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정관호의 주소

고급 전원주택 매매 (평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급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